

LPG, 내수가격 턱없이 높다!

E1, 프로판 1224.4원에 부탄 1630.0원 ... 부탄은 2배 넘어

E1(대표 구자용)은 7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을 동결한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프로판(Propane) 가격은 6월과 마찬가지로 kg당 1244.4원, 부탄(Butane)은 1630.0원으로 결정했다.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이 톤당 745달러로 6월에 비해 10달러 올랐으며, 부탄은 770달러로 5달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1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과 환율이 올라 가격인상 압박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책에 발맞추고자 가격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E1이 결정한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턱없이 높아 국내가격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기업은 매월 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확정된 국제 LPG 가격에 환율,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1개월치의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7/01>